

**보도자료**

2010년 4월 27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 과장(☎750-2550)  
통신이용제도과 이항재 사무관(☎750-2551) zhang@kcc.go.kr**이동통신 3사, 통합 앱스토어 구축방안 합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통합 앱스토어' 구축방안에 합의했으며 내년 하반기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앱스토어는 단말기 및 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이동통신 3사별로 이루어지던 콘텐츠 등록·인증·검수 등의 창구가 단일화된다.

통합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오픈마켓(T스토어, Show스토어, OZ스토어)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통신사업자 및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통합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합 앱스토어에 필요한 개발자 프로그램·앱스토어 운영시스템·서버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기존의 인기있는 콘텐츠 등 1,500여 개를 초기 통합 앱스토어에 등록해서 이용자의 관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통합 앱스토어 논의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개별적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작되었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부족과 뒤늦은 대응으로 앱스토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보다 경쟁 열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논의를 통해 이동3사가 앱스토어 경쟁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개발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편리한 개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끝

< 붙임 > 통합앱스토어 구축 방안

# 통합 앱스토어 추진 방안

## I. 추진배경

- 글로벌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스토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애플·구글 등은 앱스토어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 ※ 앱스토어 시장 매출전망(\$) : '08년 8억 → '09년 40억 → '10년 61억
- 그러나, 국내 이통사는 콘텐츠 부족과 뒤늦은 대응으로 앱스토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보다 경쟁 열위에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데에 공감
-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통3사, 삼성·LG전자간 논의를 통해 구축 기본 방향을 마련

## II.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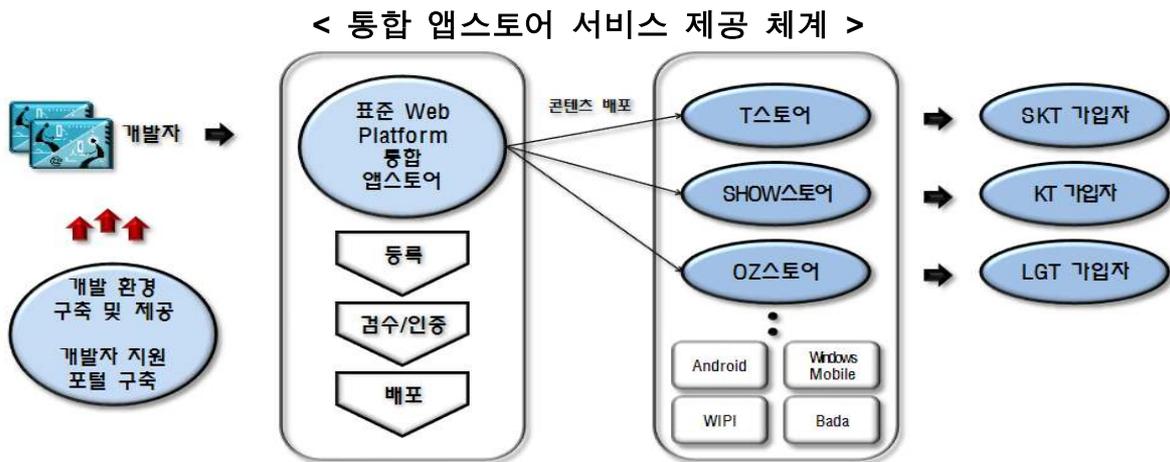
### □ 기본방향

- ◇ 이통3사가 공동으로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개발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편리한 개발환경 제공
- ◇ 이용자가 통신사 및 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단일화된 운용시스템) 이통3사별로 등록하지 않고 콘텐츠 등록·인증·검수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하여 개발자에게 편의 제공
- (모든 OS에서 이용) 통합 앱스토어는 기존의 안드로이드(구글), 윈도 모바일(MS), 바다(삼성) 등 모든 개방형 OS에서 이용 가능
  - ※ 무선 인터넷 웹(Web)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OS와 상관없는 개발 환경을 구축
- (국제표준) WAC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준을 국내 통합 앱스토어 적용
  - ※ WAC(Wholesale App Community) : 세계 24개 이통사가 함께 추진하는 통합 앱스토어

## □ 서비스 제공 체계

- (개발자) 통합 앱스토어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통합 앱스토어에 콘텐츠 등록
- (이통사) 통합 앱스토어에 등록된 콘텐츠를 자사의 스토어에 내려 받아 자사의 가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
- (이용자) 각사의 스토어를 통해 통합 앱스토어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
- (단말기 제조업체) 통합 앱스토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  
※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 텔레시스 등 참여
- (MOIBA) 콘텐츠의 등록·시험·인증·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 하며 통합 앱스토어 운영



## □ 구축 계획 및 소요예산

- (시스템 개발) 이통사는 통합 앱스토어에 필요한 개발자 프로그램 (SDK), 앱스토어 운영시스템, 서버 등을 공동으로 개발(예산 : 100억원)  
※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이통3사가 90억원(현물포함) 분담, MOIBA가 10억원 분담
- (콘텐츠 확보) 이통3사의 기존 콘텐츠중 인기 있는 콘텐츠 약 1,300개, 신규 콘텐츠 200개를 초기 통합 앱스토어에 등록(예산 : 50억원)  
※ 콘텐츠 확보 예산은 시스템 개발·구축후 집행될 예정이므로 구체적 규모는 추후 논의

## □ 통합 앱스토어 활성화 방안

- (개발자 교육) 이통사의 기존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2,500명 규모의 개인 개발인력 배출
  - ※ SKT의 T-Academy, KT의 에코노베이션센터, LGT의 OZ-Store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추진
- (단말보급) '11년 상반기 이후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고기능의 일반 휴대폰에서도 통합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보급
- (편리한 환경) 편리한 등록 환경과 공정한 수익분배가 가능하도록 중립적 기관인 MOIBA가 등록 및 수익분배 시스템 운영
- (해외진출) 국내의 통합앱스토어 개발·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WAC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
- (홍보강화) MOIBA는 일반인과 개발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운영, 이통사는 TV광고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III. 향후 계획

- '10. 5월초 : 통합 앱스토어 추진방향 발표
- '10. 5~12월 : 프로그램, 시스템 등 표준 개발
- '11. 1월 : 통합 앱스토어 시험 운영
  - ※ 상용 단말기 출시 이전에는 기존 단말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통합 앱스토어 이용
- '11. 6월 : 상용 단말 출시 및 상용서비스 개시

< 참 고 >

## 단말기 상에서의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예시

- 통합 앱스토어가 구축되어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면 단말기 상에는 2개의 앱스토어 존재
  - OS 기반의 앱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 윈도 플레이스 등)와 이동사의 앱스토어(T스토어, Show스토어, OZ스토어)가 화면에 표시
  - 이용자는 2개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통합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가능

< 단말기 상에서의 통합 앱스토어 예시 >

